

I am Jose, a film director who wants to talk about that woman. I am very emotional. All of these things swirl around me in pieces. I could digest them. My films were born as the products of these digested things. I'm different at film. But, its my way of talking to other people. I will continue in my own way to remove the facades of identity and role from females and present to my audience the themes of women finding and realizing their innate human identities.

I hope that the films I make will be something that encourages them to delve inside their own minds.



Editor's Message

온기와 정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봄을 권합니다

Experience Korea's spring, abundant with warmth and jeong

〈共ZONE〉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우내 스쳤던 찬바람이 잦아지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여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매화를 시작으로 산수유, 개나리, 벚꽃 등 봄꽃이 앞다퉈 피어나면서 우리 마음에도 봄날의 따뜻함이 채워집니다. 지난 2월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며, 2월 기록으로는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 우리나라만의 따뜻한 정(情), 그리고 봄을 느끼고 돌아가시리라 짐작해봅니다.

한국의 사계 중 봄은 한국인의 정을 가장 많이 닮은 계절입니다. 매사 열정적인 한국인들이 온기를 가득 담아 상대에 대한 배려의 마음으로 건네는 이 특별한 감성이야말로 많은 외국인들이 인정하고, 또 감동하는 '제1의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이 아닐까 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정이 넘치는 봄날,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여 방한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봄의 넉넉함과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Greetings to all readers!

Wintry winds have subsided at last, and the time to celebrate spring has returned. We find ourselves enraptured at the sight of spring flowers—apricot blossoms, cornelian cherry flowers, forsythia and cherry blossoms are in full bloom, warming our hearts.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Korea last February reached one million, the highest figure for February. Even at this moment, I hope foreigners are visiting Korea to feel the unique and warm jeong of its people and to experience what its spring has to offer.

Among all seasons, spring most resembles jeong that encompasses Koreans' warm hospitality and willingness to put others before themselves. Many foreigners tell us they are moved by jeong and recognize it as a very special emotional bond upon their arrival in Korea. Korea Immigration Service promises to provide all possible support to foreign visitors so that their stay here is a comfortable and fulfilling one.

I hope your spring is filled with warmth and joy. Thank you.

Commissioner, Korea Immigration Service Kim Young June





ZONE 2015 SPRING No.37

CONTENTS













계간 〈共ZONE〉 2015 봄호 통권 제37호 비매품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15년 4월 | 발행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 02-2110-4019 |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기획 및 디자인 ㈜더베븐파트너스 Tel 02-2038-7700 인쇄 문덕인쇄 Tel 02-462-8980

〈共ZONE〉을 앱북에서도 만나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업데이트 됩니다.





Android

02 나도 한국대표

단편영화를 부산국제영화제에 제출하며 처음 한국 땅을 밟게 되었다는 말레이시아의 영화감독 Jose, 그녀가 털어 놓은 스토리 한토막

- 04 EDITOR'S MESSAGE
- 06 담장 너머

그녀가 기억하는 봄은 정, 달콤쌉씨름한 봄밥상, 그리고 어머니다 대한민국 여류작가 호원숙이 들려주는 정다운 봄날의 추억

08 뿌리 깊은 여행

한국 정신문화의 본토 경북 '안동', 수백년을 거슬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해 온 예와 효의 고장 안동여행기, 살랑 살랑 봄바람조차도 안동에서는 슬며시 내려 앉는다.

14 봄날의 초대석

가수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애창곡이라는 독일아가씨 로미나(Romina), 한국의 동백아가씨가 된 로미나를 만났다.

- 18 THE K-FOOD 한국의 봄을 먹고 마시다, '화전과 꽃차'
- (**0 한강의 기적** 'SPEED 대한민국'을 조명한다.
- 23 사(史)적인 시간

한국인을 동포라 부르며 그들의 자유를 위해 목숨 바친 영국 언론인 배설(裵說) Ernest Thomas Bethell

24 명장면 국어사전

대중문화 속 명장면, 명대사를 통해 배워보는 한국어 표현백서 청 조 등이주기? 매스 東瑠?

- 26 발견의 미학 국가별 단위의 사용이 달라 혼동하기 쉬운 '생활 속 단위'
- 28 출입국 Q&A

온 가족이 신속하게 출국심사를 받는 마법의 패스, 패스트트랙 패스

30 LIVE ON KOREA

2009년에 개소된 '생각나무BB센터'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순수하게 이주여성들의 뜻이 모여 그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34 共ZONE 마당

INSIDE KIS

- 02 출입국 NEWS
- 04 통계로 보는 출입국
- 6 출입국 25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 10 출입국 스타

국제복상연맹(IBF) 페더급 한국 챔피언 석봉준 씨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송무지원팀 소속이다. 시틀해진 한국 복싱계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본업 공무원, 취미는 챔피언인 그를 만났다.

- 12 출입국 정책 신속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
- 16 전문가 기고

국제이민협력의 관점에서 본 비즈니스 목적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정책



지는 그 가득 핀 고향의 봄 산을 이야기하는 남자의 눈빛에 끌려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면 사랑이 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경상도 바닷가 시골출신의 남자를 만나게 된 것도 대학캠퍼스의 봄이었다. 서울에 유학 온 촌 남자는 서울내기 여학생의 눈을 바라보는 것도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먼 데를 바라보며한 이야기였다. 여자애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었건만 진달래는 그저 야산 먼 발치에 드문드문 피어 있는 것만 보아왔던 나에게 그 장면과 눈빛은 충격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사랑은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순간에 오는 것인지.

그러나 그건 낭만적이고도 순간적인 이야기이고 서울 사람의 사고방식과 시골의 생활양식은 너무 달라서 늘 부딪쳤다. 나의 언어가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고 남편이 쓰는 낱말이 나에게 거슬렸다. 같은 나라인데도 언어뿐 아니라 밥상에서 입맛을 맞추는 일이 참으로 괴롭고도 긴 여정이었다. 밥상머리는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나 자신도 놀라고 만다. 서울사람들은 잘 몰랐던 쑥국을 끓이고 봄이 되면 도다리나 가자미에 쑥을 넣어 끓이기도 한다. 요즘에는 신문이나 언론에도 봄도다리, 도다리쑥국하며 별미를 찾아다니는 여행을 보여주지만 처음 결혼해서는 도다리라는 생선도 처음 보았고 그걸 넣고 미역국을 끓이는 것이 참으로 이상했었다. 미더덕도 시집가고나서 처음 보았다. 그랬던 것이 봄의 별미가 되어 자연스럽게 내 입맛에 당기게 된 것도 30년 가까이 부대끼며 살고 난 이후이다.

마당에 구석구석 올라오는 동그란 머위잎을 데쳐서 막된장에 싸 먹으면 봄에 나른하게 지쳤던 입맛이 되살아난다. 작고 부드 럽고 연한 잎은 참으로 특별하다. 그것도 시댁의 옛집에서 보고 배운 요리이다. 그 머위가 연잎만큼 자라면 머위대를 잘라내 어 푹 삶아 껍질을 벗기어 초고추장에 무쳐먹으면 정말 별미가 된다. 시골집 언덕에 지천으로 올라오는 머위대로 매콤달콤하고도 씁쓰레한 무침을 만들면 몸이 저절로 상쾌해지고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다.

개성이 고향인 어머니도 마당에 올라오는 머위로 봄에는 이파리쌈으로 여름에는 무침으로 해드리면 좋아하셨다. 특히 마당에 저절로 올라오는 것을 솎아서 밥상에 오르게 되니까 선물을 받은 듯 기뻐하셨다. 어머니도 고향에서 나물을 캐며 다니던 유년 시절을 평생을 그리워하셨다. 고향의 마당은 아니지만 봄이 되면 출석부를 부르듯 하나하나 피어나는 꽃들을 보고 얼마나 즐 거워하셨던가. 복수초가 올라오고 노루귀가 피고 보랏빛 크로커스가 땅으로부터 왕관처럼 솟아오르고 수선화가 피기 시작한다. 팬지와 제비꽃들이 다투어 피기 시작하고 땅이 얼기 전에 심었던 튤립이 여기저기 올라오기 시작한다.

어느 틈에 매화가 피고 매화가 지면 살구꽃, 벚꽃이 만발한다. 담 밑에 심은 라일락은 삶은 아름답다는 듯 향기를 풍긴다. 순 서를 틀리는 일없이 반복되지만 자연의 반복은 조금도 지루하지가 않다. 경이롭고 탄성을 자아낼 뿐이다.



호원숙 작가 그녀는...

박완서 작가의 딸이라는 수식어로 그리고 비단 그러한 이름으로 처음 펜을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는 어엿한 한 작가로 또 한 사람의 어머니로 세상을 살아가는 아들들에게 그리고 딸들에게 어머니 박완서하고는 다른 목소리로 말을 건다. 최근에는 산문집 〈엄마는 아직도 여전히〉를 통해 단순존재로서의 어머니를 넘어 의식적 근원으로서의 어머니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제공**_ 출판사 달



The City of Scholars, Andong



Andong is a place in which righteousness and etiquette are regarded as important and where you can gain a sense of lifestyles, minds and fragrances of the scholars of old who enjoyed academia and an appreciation of the arts. Andong produced renowned wisemen such as Seoae Ryu Seongryong and widely resspect educator Teogye Lee Hwang. As a result of such individuals, the hyanggyo (Confucian school) and seowon (auditorium) were developed. Andong has more seowons than any other region in Korea, and 26 still exist to this day, which carry out memorial services commemorating the virtuousness of teachers in the seasons of spring and autumn. Based on academic tradition rooted in the spirit of the classical scholars, Andong is a renowned city of education in Korea as well as region where the roots of modern Korea's moral culture have taken hold.

Byeongsanseowon Confucian Academy, An Education Institute of the Chosun Civilization



To get to Byeongsanseowon, you must go head around the wide fields of Pungsan then cross the river and go up a hill. However once you manage to savour the exquisite scenery and architecture while facing the imposing rocky cliffs overhanging the Nakdonggang River, you will feel rewarded for the fatigue and exhaustion accumulated on the way to the seowon. Byeongsanseowon took its place as a prestigious school after Pungakseodang, an

educational institute of the Yu clan of Pungsan, was relocated here in the 5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onjo (1572) Ryu Seongryong to train junior disciples. From afar, the empty-looking Mandaeru with a circular roof standing on pillars, is the highlight of Byeongsanseowon. With 7 columns on the front side and 2 on the sides, Mandaeru was a neo-Confucian utopia where Confucian and scholars discussed academia and passions while researching the order of the universe and the cycle of nature. Although you cannot enter Mandaeru as it is currently being considered for designation as a world heritage site, you will surely marvel at the sight of the Nakdonggang River visible between the columns as you stand in the front yard of Ipgyodang. A red blossom tree and white ume blossom tree grow between Ipgyodang and Mandaeru, transforming the beauty of the scenery each year in the spring.

A Trip Back in Time to the Chosun Era! Andong Hahoe Folk Village



The Hahoe Folk Village is Andong's leading attraction. The village was named Hahoe as it is said that the water of the Nakdonggang River flowed around the area. The moment you set foot at the entrance to the village you will feel as if you have travelled back in time to the Chosun era as you are greeted by old houses, thatchedroof cottages and village streets. Hahoe is the best folk village for learning about the traditional culture of Andong as folk culture such as the Hahoe Pyolshingut mask dance, the Seonyujulbolnori (wires set on fire), and architecture of the early Chosun period remain intact. You can tour the whole village in around 1.5-2 hours. All you have to do is pick up a village map from the information center next to the ticket office and set your own route, checking the signposts as you

make your way around. A suggested route is to start at the Hadong traditional house, then head to Yeomhaeongdang (Namchondaek), Yangodang (Juiljae), Hwagyeongdang (Bukchondaek), Yangjindang, Chunghyodang, Yeongmodang, and Jakcheon traditional house. You will find many traditional cultural hands-on experiences located throughout the alleyways, including Korean totem pole sharpening and Hanji (Korean paper) craft. Otherwise you can take a quiet walk or sit on a bench and meditate as you take in the scenery of the river and Buyongdae. The entire village is designated as important folk material and was register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 on July 31, 2010. There is one thing that you should keep in mind when visiting Hahoe Folk Village in Andong. As the village locals are responsible for managing traffic in Hahoe due to its designation as a world heritage site, vehicular access is restricted to local and certain authorized vehicles. As such, regular visitors must part their vehicles in the parking lot located near the ticket office. After purchasing your ticket, you can either walk 300m to the village or take a free shuttle

The Mysterious Charm of the Mansongjeong Forest



After touring the village, follow the riverside path to the west of Jakcheon traditional house.

Follow the river then walk to the right, where you will find the Manseongjeong forest (natural monument no . 473). This is a spot where many photographers visit to take pictures of the amazing scenery of the dense forest, endless sandy beach, and rocky precipices of Buyongdae above the calm Nakdonggang River. This is a type of biborim created by Teacher Gyeongam Ryu Unryong in his youth to make up for weakness in terms of feng-shui of building the village on the west side. In this place where scholars

of old enjoyed tasteful activities such as Seonyujulbolnori, you can feel a different kind of artistic appreciation.

Hahoe Mask Museum - The Masks of the World in the One Place!

The Hahoe Mask Museum, located close to the ticket office in Hahoe village, is where you can find various masks from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ose used in the Hahoe Byeolshingut (village ritual). You can view a total of 200 masks including 13 designated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s, 2 as local cultural assets, and non-registered Yecheoncheongdannoreum masks used in Narye. It i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observe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cultures by comparing Korean culture with world cultures while viewing masks from different countries with satirical and humorous expressions. Such masks are on display in exhibit room 1, including the Hahoe mask, Sandaenori mask, Yaryu and Ogwangdae masks. You can also see the shape of a large lion mask used in Hahoe Byeolshingut mask dance scenes as well as Bukcheong sajanoreum (lion dance). In exhibit rooms 2 and 3 you can view 300 masks from the Asia region, including China's Nahee mask, lion mask, cork screw yarn mask, Barong and Langda from Bali in Indonesia, Japan's No mask, India's Chowoo mask, and Sri Lanka's cork screw yarn mask. In exhibit rooms 4 and 5, you can view masks used in the Venice Carnival in Italy as well as masks from African, South Pacific, American Indian, and Mexican cultures. It is recommended that you call the museum (054-853-2288) prior to your visit as mask decoration and mask picture rubbin activities are also on offer.

Memories of the Warm Ondol Floor! Spend the Night at a Hanok Stay

As you walk around Hahoe village you will see



Hanok Stay signs. If you would like to spend a night in the village, how about choosing a Hanok Stay as your accommodation? You will be served

traditional tea to warm you up, and you'll experience the mother-like warmheartedness of the house owner when supplied with warm bedding. Finding a cozy Hanok, starting up a wood fire in a old fireplace and laying down can wash away all the fatigue built up by travelling. In addition to staying the night in an old traditional house, one of the biggest charms of the Hanok Stay is being able to listen to the house's story told by the owner. After listening to the story behind the pattern engraved in the building's outer walls and history of the house itself, your stay will become that much more solemn. Many inns are operated in the village, allowing you to spend a special night in Hahoe village at a reasonable price.

Andong Soju and Hwajesabab (Memorial Service Food) Made with Consideration

Andong Hwajesabab or memorial service food is a mixture of vegetable dishes and soups eaten together which once was leftover food served together with Jinju Hwajesabab eaten as a night meal by Confucian scholars of old. Scholars reading deep into the night sensed that the smell of food they made late at night would wake up their neighbors. So, the scholars would call their neighbors over to eat, telling them that they had performed a memorial service (ancestral rites) when in fact they hadn't, and this

food is called Hwajesabab. This could be called a traditional culture that shows a sense of generosity and consideration for others. Together with Hwajesabab, Andong soju is a symbol of the city. Cheongju (refined rice wine) had been made using special ingredients and methods unique to each clan and passed down for generations. Soju is made by distilling Cheongju. It is also said that Andong soju has long been used as a form of first aid for wounds, stomach aches, loss of appetite and indigestion.

Hahoe Pyeolshingut Mask Dance, An Exhilarating Dance Passed-Down for 800 Years

The Hahoe mask is the only mask in Korea that h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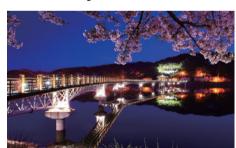
been designated a national treasure. You can watch Hahoe Byeolshingut mask dance performances, which portray the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of the local people, for free in Hahoe Folk Village.

You can feel the strength of the butchers

in the butcher's yard as they catch a cow and dance with it, and hold your breath in silence as an old grandmother weaves while lamenting her misfortune. When the performances finish, the performers take off their masks, thank the audience and dance as they make their exist. The audience then gets together and dances. Everyone regardless of age or gender falls

in love with the satire, humor, laughter and tears of the mask dances. An effort is being made to prepare subtitles about the story for international guests. You can check the performance schedule on the Hahoe Byeolshingut mask dance preservation society's website (http://hahoemask.co.kr), and on rainy days performances are held at the indoor stage.

Wolryeonggyo Bridge, A Place from Which Idealistic Love Origin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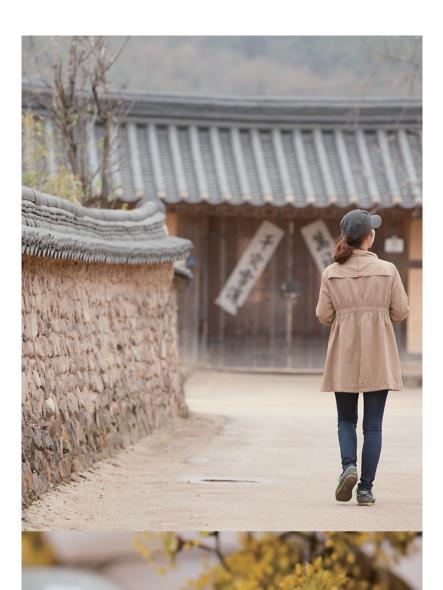


At 387m long and 3.6m wide, Wolryeonggyo is Korea's longest wooden footbridge and treasured remnant of one mid-Chosun Dynasty couple's beautiful and noble love.

It is said that the bridge was build in the shape of a pair of hemp-cord sandals in commemoration of the touching and noble love shown by the wife, who made a pair of sandals using her own hair in order to cure her bedridden husband's disease.

Many couples make their way to the bridge as it has been told that if you walk it together with a loved one your love for each other will grow stronger.





Wolryeongjeong (pavillion)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bridge is a popular spot for taking photos. While Wolryeonggyo Bridge is picturesque during the day, it is at night when its beauty becomes entrancing. From the center of the bridge, the lights of the Andong lakeside sparkle. In particular, after you cross the bridge the scenery of guesthouses basking in the glow of street lights lining the walking trail that stretches to Andong dam is enough to attract the curiosity of first time visitors. The night scenery is especially elegant from March-October when the street lights remain on until midnight.

Andong Confucian Land, A Fun and Easy Way to Learn About Confucian Culture

We recommend visiting
Confucian Land if you wish
to enjoy learning about
Confucianism, which has
deep roots in much of
Korea's culture. Andong
Confucian Land, located at
the Andong Cultural Tourism
Complex, is theme park-



concept exhibition and experience center which provides storytelling of Confucian culture, the root of Korea's moral culture. Confucian Land is an 'edutainment' complex which has been constructed in a way that facilitates the understanding of complex Confucian culture, and is where everyone including international guests unfamiliar with Confucian culture can learnt while enjoying themselves. Guests can experience the growth and everyday lives of scholars by taking a trip back in time to Daedong Village in 16th century Andong via the time tunnel. In addition to exhibits and experiences which guests can explore at their own pace, 3D images and special effects are projected 360 degrees along the walls of the cylindrical 3D image theatre, adding to the fun.

A Trip to Towers Holding Thousands of Years of History and Stories

A keyword for unique enjoyment in Andong is 'tower'.

Beopheungsaji, a 7 story brick pagoda of the Unified Shilla era and the tallest and oldest tower of its kind in Korea, has the Palbujungsang, Four Heavenly Kings, and 12 Animal System engraved in its base, and its location close to the Wolryeonggyo Bridge makes it handy to visit. Traditional brick pagoda towers with great aesthetic beauty and brimming with old tales and history are waiting to be visited. Some of these include the 5 story brick pagoda of Unheung-dong with Sangryunbu made of gilt bronze as well as the 3 story brick pagoda of Pyeonghwa-

dong, an excellent example of the aesthetic beauty of Unified Shilla stone towers with great stability thanks to its wide roof.



No. 46, An Express Bus Linking Downtown Andong with Hahoe Folk Village

The no. 46 bus departs from Andong Station (Jungang Line) an takes about 1 hour to arrive at Hahoe Folk Village. After purchasing admission at the ticket office and picking up a map from the information center, you can either walk 300m to Hahoe village or take the free shuttle bus.

First and last buses. departs bus terminal 06:20, 18:20 / departs Hahoe village 07:15, 19:10

Enquiries. Gyeongan Passenger 054-821-4071



Try the Popular Dishes at Hahoe Marketplace! Korean Set Menu with Salted Grilled Mackerel

Hahoe Marketplace is lined with restaurants serving meals and stores selling all kinds of souvenirs including the 'Hahoe mask'. Originally seafood was brought up from Yeongdok and sold in Andong, and the popular dish of salted grilled mackerel uses fish freshly caught in the south-east sea which is preserved in salt.

Location. 276 Hahoe-ri, Pungcheon-myeon, Andong, Gyeongbuk

Enquiries. Chogasamgan 054-842-3456



If You Want to Enjoy the Best Scenery, Head to the Dock!

The best view of Hahoe village can be enjoyed from Buyongdae opposite the forrest. After catching a ferry from the dock to the other side of the river, it's a 10 minute walk to the top of Buyangdae. Please enquire prior to your visit as the ferry connecting Hahoe village and the dock does not run when water height is shallow.

Admission. 3000 Won per person (round-trip)



Hahoe Pyeolshingut Mask Dance - Satire, Humor and Laughter in the one place

Exciting performances take place each week in Hahoe village. The performer's mouths and chins are left exposed allowing for more colorful acting and big smiles, which is one of the reasons why Hahoe's mask dance is so fun to watch.

Regular performance. Sat, Sun each week in January and February from 2~3pm Wed, Thurs, Sat, Sun each week during March-December from 2~3pm



Hahoe Folk Village Map



Deutsche, 한국을 노래하다 '로미나(Romina Follinus)'

무대 위 인형같이 예쁜 얼굴을 한 여인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른다. 저주가 흘러 나오고 마침 내 그녀가 첫 소절을 불렀을 때, 관중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젊은 아가씨의 입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K-POP이 아닌 가수 이미자의 명곡 '아씨'이었기 때문이다. 트로트를 부르는 독 일에서 온 로미나. 그녀가 노래하는 한국이 궁금하다.

Germany girl became the camellia on the stage

독일 소녀, 한국에 반하다

한국의 전통가요인 트로트에 절로 콧소리가 나오고. 구성진 손놀림이 자동으로 나오는 외국인이 한국에 몇이나 될까. 그 중 흡사 바비인형이라 불러도 어색치 않은 젊은 여인은 더욱 흔치 않을 것이다. 독일 태생인 로미나는 우 연한 기회에 자신이 좋아하는 트로트를 방송무대에서 부르게 되었고, 그것이 가수 이미자의 눈에 들어 이제는 어 엿이 한 무대에 오르며 투어를 하는 진짜 가수가 되었다.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TV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그 녀, 독일의 로미나와 트로트, 만리타국인 한국땅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 고 있는 그녀가 궁금하다.

어렸을 적부터 유달리 독립심이 강하고 모험을 좋아했던 소녀 로미나, 낯선 언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심지어 낯선 나라에도 거리낌이 없었다. 스무 살. 독일과는 전혀 다른 문화권인 중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에도 두려움보 다는 설렘이 앞섰다. 유학 당시 우연히 한국여행을 오게 된 그녀는 잠시 동안의 방문에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강렬 한 매력에 사로잡혔고. 이후 독일로 돌아간 뒤에도 한국을 잊지 못해 무작정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지금으로부 터 6년 전, 스물네 살의 어린 로미나는 그야말로 젊음 하나만을 가지고 한국 땅을 밟게 된다.

교환학생자격으로 한국외대에서 공부에 몰두하던 그녀는 우연히 친구 집에서 가수 이미자의 노래를 듣게 되었다. 당시를 회상하며 '정말 운명같았던 순간'이라 표현하는 그녀, 구슬픈 멜로디와 애절한 목소리, 시적 가사는 로미 나의 감성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졌고 그렇게 그녀는 트로트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다.

동백아가씨와 로미나

어린시절부터 하고 싶은 것이 많아 대사관 직원이 되기 위한 공부도 했고 통역일을 하기 위한 준비도 했다. 그러 나 어느 하나에 정착하지 못한 그녀에게 명확하게 하나의 길을 보여준 것이 바로 트로트인 셈이다. 한국의 전통 가요에 푹 빠져버린 독일 아가씨는 우연찮게 방송에서 이미자의 명곡 동백아가씨를 부르게 되었고, 그 영상을 보 게 된 이미자는 먼저 연락을 취해 자신과 함께 투어 무대에 설 것을 제안했다.



14 共ZONE 2015 | SPRING 15



로미나(Romina Follinus, 독일)

독일인 아버지와 헝가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동양학을 전공했다. 2009년 한국외대 교환학생으로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그 당시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항상 목소리를 들으며 감탄하고 존경하던 이미자 선생님께서 저를 알아보고, 또 같이 무대에 서자 고 하니 이건 정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 를 이뤄낸 느낌이었달까요."

태생적으로 방송기질을 타고난 것일까. 그녀는 전 국투어를 하며 종종 예능 프로그램에도 얼굴을 비 추고 최근에는 외국인들을 모이놓고 한국생활에 대해 논하는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방송 경험이 없고 더욱이 외국

인이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고, 그분위기가 좋아요. 엔돌핀이 돌죠. 물론 힘든 점이전혀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제가 외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카메라 앞에서는 늘 웃어야 하잖아요. 원래 잘웃긴 하지만,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유쾌한 모습을 보인다는 건 아직 적응이 될 됐어요."이제는 제법 프로 방송인 태가 나는 로미나. 유창한한 한국실력에 늘 웃고 있는 얼굴에서는 좀처럼

그녀의 고난은 티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 그 녀에게도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다. 한국생활 초창기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듯 말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고생도 흔치 않게 경험했다. 그러나 사람좋은 그녀 주변에 도움을 주는 정 많은 한국 사람들 또한 존재했기에 지금의 무탈한 로미나가 있을 수 있었다. 주말이면 한국 친구들과 여느 평범한 아가씨처럼 맛집도 찾아다니고 커피 마시며 수다를 떤다. 이제는 시내 맛집을 꿰고 있을 정도로 한국생활 베테랑이 다된 그녀이다.

타국에서 유명인이 되어가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은 어떨까. 기쁘기도 하지만 걱정이 앞서기도 할 것이나, 그녀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로미나를 정말 자랑스러워한다고.

"제 입으로 말하긴 쑥스럽지만, 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부모님과 오빠는 저를 정말 아꼈어요. 하지만 단순히 보호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믿어주고 늘 응원해주었죠. 한국생활에 대해서도 언제나 저를 응원하고 계세요."

1년에 한번씩 한국을 방문한다는 로미나의 부모 님. 그들은 한국에 오면 어김없이 서울투어에 나 선다. 그녀가 부모님에게 가장 먼저 권해드린 한 국문화는 바로 녹두전과 막걸리였다. "녹두전과 막걸리는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독일인이지만 그곳에 살던 시절에도 독일의 명물 이라 알려진 소시지와 맥주를 즐겨하진 않았어요. 한국에 온 뒤 제 입맛에 꼭 맞는 음식을 찾았죠. 녹두전과 막걸리의 조합은 한국적으로 표현하자 면 정말 기가 막혀요. 부모님도 독일로 돌아가 가 장 맛있는 한국음식으로 전과 막걸리 세트를 꼽으 셨어요."

그녀의 막걸리에 대한 애정은 유별날 정도다. 방송에 나가면 빠지지 않고 막걸리 사랑을 외치니 말이다. 이국적인 얼굴로 행동은 여느 한국인 못지않게 행동하는 그녀를 보고 있자면 절로 흐뭇한미소가 지어진다. 그녀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유쾌한 엔돌핀은 그녀에게서만 머무르지 않고, 그녀를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된다. 이것이 그녀주위에 늘 좋은 사람과 좋은 일들이 넘치는 이유일 것이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걸음이 모여

트로트는 예로부터 한국인들의 한의 정서를 대변 하고 그리하여 우리네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노래로 통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운을 전해줄 만큼 유달리 밝은 기운이 넘치는 로미나가 트로트의 애절한 가사, 구슬픈 멜로디와 감성이 맞는다는 사실은 어쩌면 그녀가 가진 감성이 트로트만큼이나 고독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까. 실제로사진 촬영 내내 신나고 발랄한 트로트를 제쳐두고애절한 노래들만 선곡하는 그녀에게서 영문 모를외로움의 멜로디가 들렸다.

"많은 사람들이 제 겉모습만 보고는 외로움을 못 느낄 거라 생각해요. 분명한 건 향수병은 없지만 본연의 외로움은 존재하죠."

외로움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나는 질문에 무조 건 견딘다고, 그저 순간이 지나가기를 바란다고 답하는 그녀의 말에서 소녀 같은 이미지 속에 숨 겨진 단단한 심장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제는 다른 가수의 노래가 아닌 자신의 노래로 제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로미나에게 곧 자신의 앨범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연기에도 도전한다. 지금 주어진 기회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로미나. 그러나 그녀에게도 다른 사람 들처럼 자신의 나라에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 지는 않다.

"언젠가는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를 독일어로 리메이크해 부르고 싶어요. 독일어로 부르는 트로트, 생각만해도 가슴이 떨려요. '트로트를 세계에 전파하겠다!' 뭐 그런 거창한 건 아니에요. 내 나라에서 모국어로 가장 좋아하는 곡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행복한 일이 될 거에요."

로미나에게는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또 하나의 꿈이 있다. 파주에 집을 지어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멋진 막걸리 가게를 차리는 것이다. 왜하필이면 그곳이 파주여야 하냐는 질문에 로미나는 '남북 통일이 된다면 통일전망대가 위치한 파주는 언제나 그 역사적 순간이 기억되는 땅이 되지 않겠냐'고 답했다. 독일과 한국은 서양과 동양이라는 좁혀지지 않는 문화적 거리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나라 사이에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아픔과 희망이 있다.로미나는 독일과 한국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교집합을 느꼈고 이해했다.

이 영특하고 기특한 여인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 지금은 무대에서 트로트를 열창하지만 언제 또 배우의 모습으로 스크린에서 관객을 만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훗날, 정말이지 독일에서 이미자의 열아홉 순정이 독일어로 불리우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한국과는 그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며 무한한 '한국사랑'을 외치는 로미나에게 어찌 정감가지 않을수 있을까. 그녀의 내일이 궁금하다. 그녀가 지금까지 불러왔던 한국에 감탄했고 앞으로 불러갈 대한민국이 궁금하다. 사랑스러움과 단단함, 독일과 한국, 로미나와 트로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만들어내는 그것. 로미나가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세상을 기대해보자.

명사의 KEYWORD 「동백아가씨」



'TIRED FROM CRYING, EXHAUSTED FROM LONGING, THOSE SMALL PETALS ARE BRUISED RED'

What led Romina to become a trot singer was the classic song 'Camellia Lady' by Lee Mi-ja, eternal witness of Korea's music industry and its biggest star. Lee Mi-ja is a legendary performer listed in the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for having produced 50 albums and around 2000 songs. 'Camellia Lady', the song that propelled her to rank of star singer, expresses the sorrow of a woman waiting for her lover. The poetic lyrics of the song brings tears to the eyes of listeners, while the lyric 'those small petals are bruised in red' vividly shows the hurt felt by the waiting woman. The sad, classic song 'Camellia Lady' was born as a beautiful fix of painful lyrics and the trot style's unique, melancholic melody. If you want to experience Korea's unique emotion of 'han' (regret) and fall in love with Korean sentiment just like Romina, we recommend you listen to 'Camellia Lady'.

IRO

form of Korean popular music. It is a combination of a four-four time fox-trothythm, sad melody and unique type of snapping' singing style which gives a nelancholic feel, making it the music style epresentative of the Korean sentiment of man(sorrow)'.



시몬이 전하는

Tea의 나라 영국의 꽃을 이용한 음료

Elderflower ade

엘더플라워는 딱총나무과의 꽃으로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식용과 약재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나 이 꽃의 고유한 향은 상큼하고 달콤한 향으로, 이를 이용한 요리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그 중 영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플라워주스인 엘더플라워 에이드 (Elderflower ade)는 레몬과즙을 섞은 물에 엘더플라워 꽃송이 자체를 담가 우려내어 꽃의 향이 진하게 배게 한 뒤 얼음 등을 넣어 차갑게 마시는 음료이다. 영국인이 피크닉 갈 때 꼭 챙기는 필수품으로 청량감과 더불어 꽃을 마시는 느낌을 물씬 전달해준다.



한국의 옛 조상들은 봄이 오면 봄의 향취와 풍류를 즐기는 '화전놀이'를 행했다. 햇살이 따스해지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 꽃으로 다양한 일을 시도했는데, 그 중 하나가 찹쌀을 반죽하여 구운 뒤 그 위에 꽃을 올리는 '화전(花煎)'을 만들어 먹는 것이었다. 또한 꽃을 말리고 찌는 행위를 반복하여 얻어진 꽃잎에 따뜻한 물을 부어 우려내 마시는 '꽃차'를 즐겼다.

작년 9월, 기술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하게 된 시몬(Simon Chan, 영국)과 안드레이(Andrej Belcijan, 슬로베니아). 회사 '시커랩'을 운영하며 구인구직 웹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는 두 사람, 행여나 이 봄 지나갈세라 그들을 위해 준비했다. 대한민국의 맛있는 봄

화전과 꽃차가 놓여진 트레이를 보자 두 사람은 '아름답다'며 연신 감탄의 눈길을 보냈다.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떡의 식감, 주춤거리며 화전을 한 입 베어 문 시몬은 '입 안이 꽃향기로 가득하다'며 미소를 보였다. 안드레이는 자못 진지한 자세로 꽃차를 한 모금 들이켰고, 그 또한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 온지 꽤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봄만 되면 사람들이 꽃을 보러 몰려다니는 것이 신기하다.

"슬로베니아에서도 봄에 꽃 축제가 열려요,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규모도 작고 몇몇의 특정한 꽃이 아닌 다양한 꽃들로 이루어진 정원을 주로 갑니다. 그런데 한국 특유의 축제 느낌은 덜해요."

벚꽃차를 마시며 올해에는 꼭 벚꽃축제를 가보고 싶다고 말하는 안드레이,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듯 웃음짓는 시몬. "영국은 아시다시피 많은 날들이 흐리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봄이 되면 햇빛을 쬐러 다들 피크닉을 가곤 하죠. 간단하게 샌드위치와 마실 것을 챙겨서요. 특별히 꽃을 이용해 요리하는 음식은 잘 모르겠네요. 한국에서는 봄에 꽃으로 이렇게 예쁜 음식을 만들어 먹다니 신기하네요."

요즘도 옛 정을 그리는 어머니들은 뒷산에서 진달래를 발견하면, '봄이 왔구나' 마음속으로 되되인다. 그리고 떨어진 진달래를 주워 정성스레 씻고 다듬어 맛있게 부쳐낸다. 차마 계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오늘을 보내고 있는 자식들에게 가장 먼저 봄을 가져다주고 싶어서.

시몬은 오늘과 같이 친구와 마주앉아 말 그대로 꽃을 먹고 마시는 이 봄의 분위기를 즐기는 특별한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봄의 디저트라 소개하니 '그럼 가을에는 먹을 수 없나요?'라고 묻는 안드레이, 세상이 좋아져 요즘은 가을에도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꽃으로 화전과 전통찻집을 방문하면 일년 내내 꽃치를 즐길 수 있겠지만 설마 그것이 오늘 이 봄의 향취와 풍류에 비견할까. 얼마 남지 않은 이 봄의 끝자락, 놓치지 말고 함께 즐겨보시길.





#ZONE 2015 | SPRING 19

한국인의 특별한 성격이 만들어낸 놀라운 21세기 대한민국

'Speed Korea', the Surprising Korea of the 21st Century created as a result of Unique Korean Personality

The service industry is a direct result and indicator of economic growth. One futurologist once said that as an economy grows, it passed from being based on agriculture, to industrialization, before finally arriving at the service industry stage. The fact that the service industry in Korea accounts for about half of its gross national output is clear proof that the Korean industry has achieved high development and demonstrates the impressive evolution of the service industry. What could have made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service industry possible? Let's take a look at the 'service speed/convenience' only possible in Korea.

글 **김초록** 참조 **〈한국인·자부심·문화열차〉 박종원**



'빨리빨리' 문화와 세계인이 놀라는 서비스의 탄생

한국인 특성 중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빨리 빨리' 특성을 말한다. 혹자들은 대한민국의 고속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이러한 특성에 기반한다고도한다. 그렇다면 초고속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한 이것, '빨리 빨리' 문화는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 다양한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구한말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매우 낙천적이고 행동이 느리다고 전해진다. 예부터 '양반은 비가와도뛰지 않는다'고 했고, 한국의 조상들은 자못 느림의 미학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후 이들의 특성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치 앞도 보이지않는 자욱한 연기, 어디서 쏘아대는지 알 수 없는 총성들, 그러한 상황에 한국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피난길로 나서야 했다. 또한 전쟁 후 폐허가 된 한반도에서 빠르게 나라를 복구시켜야만 하는 사명감을 등에 업고 있었다. 즉, 전쟁이 남긴 트라우마가 '빨리 빨리' 문화 조성에 일조한 셈이다. 대한민국의 서비스를 논하기 이전에 이 같은 한국인의 특성을 말하고자 한 것은이들이 만들어내는 일명 '코리아 특급 서비스'가 바로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이것만이 지금의 세계인이 놀라는 서비스를 탄생시킨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만의 빠르고 편리하며 정확한 서비스는 '빨리 빨리'라는 특성에 전문성이 더해지고 거기에 타인을 배려하는 한국인의 남다른 '정'이 더해진 결과물이다. 이러한 결과물은 매번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놀라게 한다. 빠르기만 할 뿐만 아니라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편리한 서비스의 구현, 오직한국인들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Birth of the "Hurry Hurry" Culture and Service that Impresses International Visitors

When ask to pick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eople, many often answer with "bballi bballi" (hurry hurry). Some say that this characteristic was what allowed Korea to grow economically at such a fast rate. So, when did this 'bballi bballi' culture, that made Korea's light-speed economic growth possible, emerge? If we look at several historical materials we can see that the Korean people were very optimistic and slow in action right up until the Late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Since old times, it was said that the 'noblemen did not run even when it rained' and Korea's ancestors placed an emphasis on the aesthetics of exceeding slowness. However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is Korean characteristic changed dramatically. In the midst of dense smoke in which you couldn't see your hand in front of your face,

while bullets zoomed in all directions, Koreans had little choice but to seek refuge and not look back. In addition, the Korean people had to shoulder the responsibility of quickly restoring the country from its state of ruin after the war had ended. The resulting trauma of the war surely played a part in the creation of Korea's 'bballi bbali' culture. Before discussing Korea's service, so called 'special Korea service' is an outcome reflecting this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people.

However, this is not the only reason for the birth of Korea's service which impresses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Korea's fast, convenient and precise service is also the result of expertise and 'jeong', or consideration for others. These results consistently impress international visitors to Korea. Only Koreans are capable of creating fast and convenient service that leaves a lasting impression on customers.

배달(倍達)민족이 배달(配達)의 민족이 되기까지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한국만의 서비스는 단연 배달 서비스. 음식 배달, 퀵 서비스, 택배 서비스 등에 이어 심지어 24시간 심부름 배달까지 다양한 배달 서비스는 익숙한 일상이 된지 오래다. 이렇듯 다양한 배달 서비스가 실현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흔히들 배달(配達)의 민족이라 부른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배달민족이라 부른 것은 오늘날의 일만은 아니다.

시간을 거슬러 기원전 3898년의 이 땅은 정말로 배달(倍達)나라였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배달(倍達)국 -이 때의 배달은 대대로 도를 이루며 이어져 온 밝은 나라를 뜻한다- 설립 이후부터 한국인들은 배달(倍達)민족이라 불리게 된다. 도를 이루는 배달의 민족에서 편리성과 신속성의 배달 서비스를 구현하는 배달의 민족이 되기까지 또 하나의 발판이 되었던 것은 바로 정보지식기술이다.

정보기술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속도감이 곧 경쟁력이고 이는 한국인들의 기질과 잘 맞아떨어져 IT산업은 일찍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IT기술과 서비스 산업의 만남은 상상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사람이 행하는 서비스에 정보지식의 전문적 기술이 더해 지자 서비스는 더욱 신속해졌고 정확해졌다. 이 같은 서비스업의 진화는 소비 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냈고 결과적으로 산업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제는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 몇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20분 후에 내가 주문한 요리가 제공되는 상황에 이를 정도이니 더 이상의 부연설명이 필요치 않다. 이같이 배달문화는 한국의 고유명사로 자리잡았지만 유

래를 살펴보자면 이는 해외에서 유입된 수입품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만의 고유한 색이 더해져 '코리아 특급 서비스'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대한 민국 배달서비스는 더 이상 국내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코리아 서비스에 놀란 외국인들의 수요에 일찍이 해외수출 상품이 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 어디든, 대한민국만의 서비스를 경험할 날이 머지 않았다.

From Ancient People to the People of Home Delivery

Korea's unique foreigner-impressing services including delivery service, food deliveries, quick service, parcel service, and even 24 hour errand services, have been a normal part of Koreans' lives for a long time. With its many delivery services, Koreans have commonly been referred to as the 'delivery people'. However, this term used to refer to Koreans is not a new one.

Tracing back in time to 3898 BC, Korea was once called 'Baedal' (coincidentally the Korean word for delivery). Since the foundation of Korea's first nation 'Baedal' (meaning a bright country in which morality was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Koreans have been called the 'baedal people'. Another steppingstone in the transformation of Koreans from the 'baedal people' to the 'delivery people' who provide convenient and fast delivery is information technology.

The speed and accuracy provided by IT in processing information is a source of competitiveness, and the IT industry which matches well with the Korean disposition has for a long time led the way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The combination of IT and the service industry created an unimaginable synergy effect. When services performed by individuals were complemented by specialized IT, services become even faster and more precise. This evolution of the services industry brought about greater customer satisfaction and eventually gave a boost to the entire industry. There is no longer a need to make tedious explanations to a person over the phone as now you can get your food delivered 20 minutes after touching a few buttons on your smart phone. While this delivery culture has become synonymous with Korea, if we look at its origins we can see that it was actually imported from abroad. Despite this, Korea added its own touch to give birth to its very own 'special Korean service'. These days, Korea's delivery service is no longer confined to Korea only. Foreigner-impressing Korean service has become a product for export due to its strong global demand, and is actively expanding on the world stage. It is not long before you too, no matter where you are, will be able to experience Korea's unique service.

대한민국 서비스의 상징 '인천국제공항(Incheon Airport)'

공항이라면 으레 많은 사람들로 복잡하고 그에 따라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데' 소비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서비스의 상징,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모든 공항이 똑같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이 도입한 SES(Smart Entry Service,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제도는 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대면심사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신속하고 편리한 제도다.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이용객 출입국심사를 단 12초만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 55개국 188개 도시를 연결(14년 11월 기준)하는 동북아시아의 허브(Hub)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13년 동안 9년 연속 공항 서비스평가 세계 1위를 달성하고, 14년도에 세계최고 공항상을 10회째 수상하며 '글로벌 트래블로 명예의 전당(GT Hall of Fame)'에 등재되었다.

Incheon Airport, A Symbol of Korean Service

When most people think of airports, congestion and waiting come to mind. However, if you have ever been t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Korea's border through which you have to pass to enter the country and symbol of the country's service, you will know that not all airports are the same. The SES (Smart Entry Service) introduced by Incheon Airport, is a quick and convenient IT-based system which conducts immigration inspection and checks your identity without the need for face-to-face screening. This system allows Incheon Airport to quickly process the immigration screening of terminal passengers in only 12 seconds. Incheon Airport plays the role of Northeast Asian hub connected to 188 cities in 55 countries (as of November 2014), and has selected as world's best in service for 9 consecutive years during the 13 years since its opening in 2001. In 2014, it was awarded world's best airport for the 10th time and registered in the GT (Global Traveller) Hall of Fame.



"나는 죽더라도 대한매일신보를 영생케 하여 대한동포를 구하라"

글 김초록 일러스트 김수민

한일합병조약을 1년여 앞둔 격동의 시기 1909년, 대한제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 땅에서 죽음을 앞둔 이가한 말이다. 그는 바로 영국인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Ernest Thomas Bethell, 1872~1909). 1888년, 베델은 16세 나이에 영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32세까지 일본 고베에 거주하면서 무역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리・일전쟁이 발발하고, 베델은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Daily Chronicle)의 특별통신원 자격으로 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 땅을 밟는다. 그는 서울에 도착하여 경운궁에 불을 지른 일제의 만행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 영국으로 송고하저만, 그가 전하고자 하는 뜻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고된다. 이에 베델은 한국이 처한 역사적 불행을 만인에게 알리기 위해 우국지사 우강(壽岡) 양기탁 선생과 뜻을 모아 1904년,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다. 그는 국・영문판, 한문판에 이어 한문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한글판을 발행하며 이 땅에서 벌어지는 각종 국가적 사건사고를 알리기에 앞장선다. 이러한 이유로 일제로부터 각종 언론탄압을 받았고 심지어 옥고를 치르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는 끝내 한국인들의 통한사를 모른 척하지 않고 펜을 들었다. 옥에서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09년, 푸른 눈의 영국인은 자신의 나라에서 만리의 땅 대한민국에서 숨을 거두게 된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에는 노르스름한 풀로 뒤덮인 흙 아래 한 사람이 뉘어져 있다. 한국인을 동포라 부르며 그들의 자유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사람, 고종황제가 명명한 한국이름 '배설(衰說)'이다.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언론 탄압 속에서 외국인의 치외법권을 이용한 대표적 민족지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철 좀 들어줄래? 明白事理?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 다시보는 명장면으로 드라마를 봤을 때의 감동도 떠올리고. 한국어 실력도 챙기세요.
- 이번 명장면 국어사전은 2014년에 종영한 드라마〈별에서 온 그대〉속 명장면에서 준비했습니다.

글 **황지혜** 사진 SBS

'연예인 대학 특혜입학' 논란이 사회적으로 불거지자 배우 천송이(전지현)는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학교에 출석한다. 그리고 이웃에 사는 도민준(김수현)이 교수인 것을 알게 되어 당황한다. 이사 첫날, 강렬한 첫만남 이후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강의가 끝난 후 천송이는 도민준을 찾아가 연예인임을 앞세워 학교에서 특혜를 부탁하는데, 이에 도민준은 천송이를 따끔하게 질책한다.





인간의 인생은 철이 들만큼 길지 않아 人生没有足够的时间等待你去变得懂事



철을 들고 있다니, 무거운 철(iron, 鐵)을 들고 있다(carry)는 뜻일까요? 여기에서 철은 철(iron, 鐵)과 한국 어 발음이 같지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렇듯 철이 다른 뜻을 갖게 된 데에는 재미있는 어원이 있는데요.

예부터 한국에서는 계절(season 季節)과 철을 같은 말로 써 왔습니다. 계절이 자연의 원리에 따라 변화하듯 사람의 변화 즉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는 모습을 계절에 비유해 철이 사람의 지혜나 올바른 행동 자세를 비유하는 말로도 쓰인거죠. 따라서 대화 속 '철들다'는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기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한편 종종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도대체 언제 철이 들래? 이 철부지야!'하고 호통치는 소리를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위에서 설명한 철이란 단어에 알지 못한다는 뜻의 '부지(不知)'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마치 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옳고 그름을 잘 분간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나다, 철들다와는 반대의 개념이라는 거, 이제 아셨죠?









我们常会听到许多大人如此斥责孩子,"到底什么时候才能董事?你这不懂事的孩子!"。其中,"철부지"是上述已作出解释的"철"与意思表示不知道的"不知"组成的合成词,其意思是"就像不成熟的孩子那样无法分辨是与非"。现在您知道 "철나다. 철들다"的反义词是"철부지"了吧?

유**의어** 近义词

철나(懂事



철부지 不懂事,不明事理



- 우리 OOO가 철들면서 인사를 너무 잘하네!
 我们的 OOO逐渐懂事,非常彬彬有礼!
- 아직도 OOO가 철 모르는 소리를 하더군! OOO仍旧说一些不懂事的话!

#ZONE 2015 | SPRING 25

"딱 맞게 입으실 거면 55사이즈로 드릴게요~"

봄 기운 만연한 날씨, 기분을 내고자 옷 쇼핑을 나선 짜옌 씨가 모처럼 원하는 옷을 골랐습니다.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55, 66, 77? 낯선 숫자가 옷 치수 표시인가 싶지만 헷갈리기만 하네요. 점원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매한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번쯤 경험해 봤을 법한 상황인데요 한국에서 통용되는 단위의 사용이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혼란을 줄이고자 알아보았습니다. 생활 속 한국의 단위들!

글 박지연

옷살땐당당히, 언니 66사이즈 주세요!

옷을 살 때 앞선 상황처럼 55, 66, 88 등의 치수표시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한국에서의 44사이즈는 국제표준 XS사이즈로 통용됩니다. 55→S. 66→M. 77→L 그리고 88은 XL사이즈를 나타냅니다. "90호 드릴까요? 100호로 드릴까요?"라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대게 남성 의류를 사러 갔을 때 55, 66 등의 치수 대신 90호, 100호 등의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85→XS. 90→S. 95→M. 100→L. 105→XL 그리고 110은 XXL사이즈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인치(inch) 대신 센치(c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inch는 2.54cm가 되고요. 10cm면 대략 4inch가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키를 재는 단위 역시 한국은 피트(ft)와 인치(inch)를 쓰지 않고 cm를 쓴답니다. 1ft가 30.48cm로, 키가 5'3"(5ft 3inch)라면 대략 160cm가 되겠지요.



스마트폰 네비게이션으로 모르는 길을 검색할 때도 외국인들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거리를 나타내는 야드(yard)가 더 익숙한데 한국에서는 미터(m)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1m는 정확히 1.093613yard인데 100m가 대략 110yard, 200m가 220yard 그리고 90m라면 99yard가 된답니다. 계산법은 미터 값의 10%를 더해준 뒤 단위를 야드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도착지가 450m 전방인데 이 거리를 yard로 바꿔 생각하고 싶다면 미터 값 450의 10%인 45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495yard! 참 쉽죠?





아주머니, 돼지고기 1근만 주세요~

마트에서 장 볼 때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주머니 돼지고기 1근만 주세요~" '1근'은 관습에 따라 야채 200g, 과일 400g, 고추나고기는 600g을 나타내는 한국 고유의단위합니다. 사실 전자저울이 보급되면서 '근'단위의 거래가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아직도재래시장이나 정육점(식당)에서는 어렵지 않게들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 1근은 돼지고기600g이라는 거이제 아셨죠? 한가지 더!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 한국은온스(oz)대신 그램(g)을 사용합니다. 1oz가28.35g이 된다고 하니 10oz는 283.5g으로반근이 살짝 안되고, 20oz는 566.9g로1근이 좀 안되는 양이겠군요.

한국에 오면 나이가 많아진다고?

한국은 나이를 세는 방식이 좀 독특한데요. 예를 들어보죠. 2014년 12월 31일에 박00 양이 태어났습니다. 다음 날인 2015년 1월 1일 박00 양의 나이는 몇 살이 될까요?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한 살을 부여하며. 그 후에 해가 바뀌면 생일에 관계없이 한 살을 추가합니다. 때문에 박00 양의 나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두 살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는 중국에서 유래된 동아시아의 나이 계산법이지만 현재 한국에서만 공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한국에서 나이를 밝힐 경우엔 보통 개월 수를 따지지 않지만 개월 수를 고려한 국제 나이 앞에 '만'을 붙여 "저는 만으로 00세 입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실용정보를 오려두고 보관하세요!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고유 단위

	단위	사용 예		
근	보통 돼지고기 600g을 나타내는 단위	이주머니, 여기 돼지고기 1근만 주세요.		
모	두부, 묵 따위의 덩이	두부 1모 주세요.		
마리	짐승이나 물고기, 벌레 따위를 세는 단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송이	꼭지에 달린 꽃이나 열매 따위를 세는 단위	꽃 한 송이, 포도 한 송이		
그루	나무를 세는 단위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켤레	신발, 양말 따위의 짝이 되는 두 개를 한 벌로 세는 단위	양말 한 켤레, 두 켤레…		
살	나이를 세는 단위	저는 올해로 26살 입니다.		
공기	밥 따위를 그릇에 담아 세는 단위	이모, 여기 밥 한 공기 추가요!		
술	숟가락으로 떠서 헤아릴만한 분량	밥 한 술 떠보세요.		
대	차, 비행기 등을 세는 단위	저기 모퉁이에 외제차 한대가 서 있네.		
채	집, 이부자리를 세는 단위	집 한 채 장만이 정말 힘드네요.		
줌	한 주먹 양(동글동글 한 알갱이)	모래 한 줌을 움켜 쥐었다.		
사리	국수 같은 것을 동그랗게 말아 놓은 것을 세는 단위	라면사리 하나 추가요.		
모금	물 같은 것을 입 안에 한번 머금은 분량	아빠, 콜라 한 모금만 더 마시면 안돼요?		
단	짚이나 채소 따위의 묶음	시금치 한 단만 사갈게요.		

한국과 타국의 단위 사용법 차이

대한민국

섭씨 ° C (1 ° C)

센치(1cm)

센치(100cm)

미터(1m)

킬로미터(1km)

그램(28,35g)

킬로그램(0.45kg)

리터(3.8L)

cc, ml

(약 450~550cc)

단위

길이(옷 치수)

길이(키)

길이(거리)

길이(거리)

무게(스테이크)

무게(몸무게)

(기름, 우유)

부피(맥주)

기온

다른 나라

화씨 ° F

(33.8°F)

인치(0.4inch)

피트(3.28ft)

(1,09yard)

마일(0.6mile)

온스(1oz)

파운드(1lb)

갤런(1gal)

파인트(1pt)

5'4"(5ft 4inch)

100(110yard)m

전방입니다.

10,6oz→300g

110.2lb→50kg

한 잔(500cc) 더요!

차가 많이 막혔네! 어머님~ 서둘러야겠어요 비행기 시간 엄마~ 나 다됐지? 화장실 가고 싶어~ ***항공 얘야. 저기 보렴. 저 새댁은 줄도 안서고 큰일이네. 123편 탑승객은 아직도 줄이 남았어! 서둘러 탑승해 주시기 심사를 받는구나? '패스트트랙 패스'? 아니, 저기 새댁은 줄도 안 서고 심사를 그게 뭔데요? 받던데 그럴 수 있나요? 진정하세요~ 가족여행 가실 때 알아두면 좋을 '패스트트랙 패스'를 모르셨네요!

아는 사람만 이용한다는! 신속하게 출국심사를 받는 마법의 패스가 있다고?

Have you heard?

There's a special pass for fast and convenient immigration processing!

일러스트 **강주연** 자료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지난 겨울, 팔순의 노모를 모시 고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 습니다. 그때 비행기 탑승 시간에 촉박하게 공항에 도착했는데, 출국심사와 탑승수속 대 기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놓 칠까 내내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그렇게 다급 할 때, 가족이 모두 함께 신속하게 출국수속 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Last winter, I went on a family trip to Japan with my 80-year-old mother. We arrived at the airport very close to the boarding time, and the queues for check-in and security were incredibly long. I was nervous that we wouldn't be able to catch our flight in time. When under time pressure, is there a way for families to pass through immigration control and other procedures quickly?

> 이용장소 및 가능 시간 안내 ② 1~4번 출국장 측문: 각 출국장 운영시간 **Locations and Times**

각종 출입국심사 서비스와 외국인정책과 관련해 궁 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共ZONE〉 편집실(zee@ theseven.co.kr)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독자 여 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인천공항으로 출국하시는 노약자분은 간편하고 신속한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이용하세요. 패스트트랙은 보행장애인(1급~5급), 고령자(만 80세 이상), 유소아(만 7 세 미만), 임신부, 항공사 병약승객(휠체어, 항공침대, 의료용 산소 등 필요여객) 등 장시간 대기가 어려운 교통약자와 동행자(2인)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보안검색과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출국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본인이 이용하는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에서 이용대상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장애인 수첩. 임산부 수첩 등을 여권과 제시한 후 '전용출국통로 출입증(Fast Track Pass)'을 받 으시면 됩니다. 이후 전용출국장 입구에서 직원에게 여권과 함께 전용출국통로 출입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용 대상자로 선정된 외국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부터 법무부가 관리하는 출입국 우대자와 동반여객 2인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Fast-track areas that provide fast and convenient immigration processing are available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for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These areas are reserved for disabled people who are classified as grade 1 through 5, elderly people aged 80 or older, children below the age of 7, pregnant women, passengers with mobility disadvantage (who require wheelchairs, stretchers, medical oxygen and so on), those who are physically unable to wait for long periods of time, and two accompanying persons. To get a fast-track pass, passengers should verify their eligibility by presenting their passports, registration card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regnancy health records and other relevant documents at a checkin counter. Before using the service, passengers simply present their passports and fast-track pass at the fast-track departure gates. Eligible foreigners can also use this service. Since November 2014, eligible users have been expanded to include Immigration Priority Card holders manag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s well as up to two accompanying persons.

- 패스트트랙 전용출국장(동편 1, 서편 4번 출국장 옆): 오전 7시~오후 7시
- Fast track areas located near the eastern Gate 1 and western Gate 4 of the airport's departure floor: Open from 7 a.m. to 7 p.m.
- 2 Near departure gates 1~4: Operating time of the respective departure gate

28 共ZONE 2015 I SPRING 29

당에서 다르지만,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생각나무BB센터'

어느 이른 아침, 중랑구 중화동의 한 지층에서 아침의 고요를 깨는 낭창한 목소리들이 맑게 울려 퍼진다. 자세히 살펴보니 대략 스무 명의 여성들이 둘러앉아 합창을 하고 있다. 조금은 서툰 발음이지만 분명 한국인의 그것 '한국어'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사는 결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중국, 베트남, 남아공, 몽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그녀들 어떤 사정으로 대한민국 그리고 한 장소에 모여 합창을 하게 되었을까.

글 **김초록** 사진 **이영균**



낯선 땅에서의 시작, 그리고 도전

중국에서는 '자람', '성장'을 나무에 비유하고 따라서 중국 교육계에서는 '생각나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쯤 되면 이주여성 자조모임의 명칭이 어찌하여 '생각나무BB센터'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뒤에 붙은 BB의 뜻은 무엇일까. BB는 '이중언어-이중문화'를 뜻하는 'Bilingual-Bicultural'의 약자이다. 센터장인 안순화 대표는 이 이름을 짓는데 무려 3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2009년에 개소된 '생각나무BB센터'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순수하게 이주여성들의 뜻이 모여 그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시작은 역시나 미약했다. 그러나 몇 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었던 모임은 점차 참여 인원이 많아지면서 센터 또한 중랑구 중화동으로 옮겨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어떠한 지원 없이 이루어지는 모임이기에 제반비용 또한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회원들은 지원을 받고자 그 어느 공공기관에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이주여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기에 당연한 혜택이란 것은 없다. 그들은 혜택을 바라기 보다는 스스로 혜택을 만들어가고자 하였고 그래서 지금, 그들은 공부하고 또 노력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일어나려 한다.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은 이주여성이 직접 강사로 나선 '다문화 인식 개선' 강의였다. 강단에 서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이주여성이 강단에 서는 경우는 적었을 뿐 아니라 혹여나 강의를 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오해를 불러오지는 않을지, 다문화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을 심어주는 것은 아닐지 늘 노심초사의 연속이었다. 예상과는 다르게 강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 이유는 단순히 강사가 '이주여성'이었기 때문. 그렇게 사람들의 흥미로 시작된 강의는 언제나 기립박수로 끝을 맺었다. 그들이 세상에 내고자 하는 목소리는 또렷이 청중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강의가 끝난 후, 한 청중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토로했으며, 혹자는 그들의 도전에 열렬한 지지와 존경을 표했다.

우리가 또 다른 우리에게

생각나무BB센터의 수요일 프로그램은 영어 강의로 문을 연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 'How about you?', 'And you?' 등의 문장을 주고받으며 연습에 한창이다. 칠판을 연신 두드리며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은 강사 덜거르마 씨. 그녀는 한국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이주여성이다. 현재는 광운대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있는 그녀, 바쁜 나날 속에서도 시간을 짬 내어 아침마다 이주여성들의 영어 강의를 도맡고 있다.

"봉사활동이라 생각지 않아요. 그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함께 공부하고 앞날을 위한다고 생각해요. 그녀들의 공부에 대한 넘치는 열정으로 도리어 제가 에너지를 전해 받고 간답니다."

강의 참가자들 중 대부분이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제나 마음속으로 배움을 갈망하지만 실질적인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앎에 대한 목마름을 이 해하기에, 그녀들 역시 배움의 수혜자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원어민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원어민 교사로도 활동하며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이주여성이 또 다른 이주여성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넘어서서, 언어와 또 문화를 가르치는 그녀들, 그리고 그녀들은 이를 발판삼아 더욱 빛나는 내일을 향해 가고 있다.

생각나무BB센터 안순화 대표

이주여성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취약계층이라는 시선이 사라진 이름다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최초로 서울시봉사 상을 수여받은 안순화 대표. 그러나 그녀 또한 한국에 정 착한 초기에는 모든 것이 두 렵고 불안하기만 했다. 무엇 을 해도 '이주여성'이라는 꼬 리표가 따라붙었고, 한국에 서 '이주여성'이라는 이름으



로 살아가는 것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나서부터 많은 것이 쉬워졌다. "저는 결혼을 해서 타국으로 이민 온 여자일 뿐이었어요. 그게 어때서요? 그것이 왜 사회적으로 눈초리를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건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나 자신부터 내 상황을 인정하고 현실을 극복해가자고 생각했죠." 낯선 땅에서 모든 것이 두렵겠지만 그래도 시도해보고 도전하라고 조언하는 그녀,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은 자신에게 가져오라며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그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국민이자 생각나무BB센터의 안순화 대표이다.

생각나무BB센터는 언제나 많은 이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07 전화: 02-2208-0130 / 010-9992-0130 www.bbcenter.co.kr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되어

'뭉게구름'이라는 곡으로 각종 합창대회에서 수상을 휩쓸며 실력 또한 인정받은 그녀들, 악보를 펼치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사뭇 진지하다. '어울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와 닿은 적이 있을까. 제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러나 하나의 말소리를 내며 그야말로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모니가 완성되기까지 그 누구보다 애를 쓴 이언심 강사, 치과 기공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취미생활로 피아노를 배웠고 안 대표의 권유로 우연찮게 이주여성들에게 합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평소에 전혀 교류가 없었던 이주여성, 실제로 마주한 그녀들은 각종 언론에서 비춰주던 모습과는 달랐다고 한다.

"항상 TV나 다른 매체에서 봐왔던 이주여성들의 모습은 어딘지 소극적이고 약한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경험한 여성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죠. 그녀들은 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아이를 양육하며 자신 또한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고, 또한 취미생활에도 적극적 으로 나섰죠."

이언심 강사와 같이 시간을 내어 센터에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는 여러 강사들 덕분에 센터에서는 합창 뿐만 아니라 트로트, 난타, 탭댄스 등 다양한 재

미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점심시간, 그녀들은 각자가 준비해 온 음식을 하나 둘씩 꺼내 놓는다. 식탁은 각 국의 다양한 손맛으로 글로벌해진다. 음식을 먹으며 각종 이야기보따리 또한 꺼내 놓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다문화 관련 제도들에 대한 이야기 까지.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노랫가락에서, 신나는 춤자락에서, 이렇게 둘러앉은 식사자리에서 다시 한번 오늘의 걱정을 씻어내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그녀들이 끊임없이 스스로 일어나려 노력한다고 했던가, 어쩌면 그들은 애당 초 온전하게 두 발로 굳건히 이 땅을 딛고 서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편견 이, 왜곡된 시선이 그녀들이 딛고 있는 땅을 흔들리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하

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녀들이 딛고 있는 땅, 그녀들이 가꾸는 삶의 터전, 또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임을 말이다.





해외 유입 결핵 관리 법무부가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결핵환자가 있냐구요?



우리나라에는 2013년 말 현재 4만 5천명의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2013년 한 해에만 2천 2백명이 결핵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왜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죠?



외국인 결핵환자 수가 지난 10년 사이에 8배나 증가하였고, 난치성 결핵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고 있어 관리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왜 법무부에서 강화하는 것인가요?



비자발급에서 체류허가까지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업으로 이번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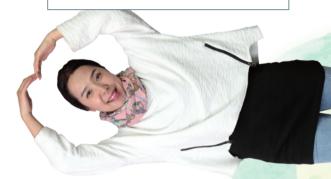
어떤 방식으로 강화되는 것인가요?



법무부 지정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들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결핵진단을 받고 출국한 경우에는 완치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비자발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2015년 새로워진 NEW



김월성 Kim Wol-seong (한국)

소개해주세요. (共ZONE)이 많은 외국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주변에 많습니다. 이주여성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활약상을 많이 정보가 없어서 사회활동을 못하는 이주여성들이 생각보다

information. Please provide as many activities and roles in to actively participate in as possible aren't able to participate in society as they don't have I hope that 〈共ZONE〉 will be a book with which many There are more migrant women than I thought who foreigners can form a sense of identification.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영애 Son Yeong-ae (한국)

공연이 끝나면 탈을 벗고 인사한 다음 춤을 추며 마당을 빠져나가는데, 이때는 관객과 한데 어우러져 춤추기도 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너나할 것 없이 신이 나서 참여하죠.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움이 공존, 아닐까요?

When the performance finishes, we take off our masks, thank the audience and dance as we make our exit. At this The foreign tourists absolutely get excited and join in. Isn't 'coexistence' the joy of each other's company? time we form a group with the audience and dance. (共ZONE)이 행복하고 즐거운 소식을 가득 담았으면 해요. I hope that \langle 共ZONE \rangle is full of happy and enjoyable things.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共ZONE)이 민원인과 직원들 사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민원인들이 출입국사무소를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민원인들이 직원들에게 거리감을 느낀 상태로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으면 합니다.

employees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both sides to better understand each other. It would be great if more people will be able to play a bridging role between visitors and immigration office feeling a sense of distance between yees. I hope that 〈共ZONE〉 were comfortable with visiting the immigration office. There are many occasions in which people visit the



이복연 Lee Bok-yeon (한국)

한국을 찾은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共ZONE)will play the role of companion to foreign (共ZONE)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共ZONE)이 Immigration Service as a representative of Korea ourselves in their position. I think that the Korea whether they feel comfortable or not by putting and (共ZONE) are of the same mind. I hope that 안동 하회마을에 있는 '지산고택'에는 제법 많은 외국인 그분 입장에 서서 불편함이 없는지 생각합니다. 한국을 대표해 외국인을 맞이하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와 A lot of foreign tourists visit 'Jisan traditional house' in the Hahoe Folk Village in Andong.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면 최대한 ever we greet a guest, we think about tourists visiting Korea. Whe

〈共ZONE〉이 많은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다양한 hope it will include various stories helpful book for many foreigners. that we can talk about together. I hope that 〈共ZONE〉 will be a 이야기들이 실렸으면 좋겠어요. 로미나 Romina (독일)



순쇼나 Sun Sho-na (한국)

book is published in many different languages. I hope that $\langle \pm ZONE \rangle$ will be a book that provides that content designed to accommodate these 좋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발행되면 좋겠어요.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Koreans. I hope sentiments is included. I also hope that the (共ZONE)이 감성적인 콘텐츠와 더불어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주여성들의 정서 또한 다른 한국인들과 다르지 The sentiments of migrant women are no 않습니다. 정서에 맞는 콘텐츠를 실어줬으면 rate and specialist inforr with sensitive content.

(#ZONE)의 주인공은 출입국 직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간 끈끈한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특집이 생겼으면 합니다. 사내 커플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소개하는 특집은 어떨까요?

issue about the strong ties of solidarity between staff members. There are a lot of couples at the office, how out them? I also hope in $\langle \pm 20 \text{NE} \rangle$. It would be nice if there was a special there will be many events in which readers about making a special issue ab can participate. Please rotation!

국제이민협력의 관점에서 본 비즈니스 목적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정책

글 조영희 부연구위원(IOM이민정책연구원)

많은 국가들은 비즈니스 목적의 이주자가 본국과 목적국을 오가며 초국가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동안 이주자의 본국과 유입국 양쪽에 미치는 상호적인 개발 효과에 주목한다. 이것은 다른 유형의 국제이주에 비해서 비즈니스 목적 외국인에 관한 국제이민협력이 보다 쉽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이다.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대되는 가운데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관한 논의도 최근 활발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국가들은 국제이민협력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목적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에 관한 정책을 고안해 나가야 할 것이다.

Many countries have much interest in the development effects of business travel to overseas- both for home countries and for the destination. This is the reason why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business travel is easier than other types of migration. In particular, the emerging discussion on free movement for service business sector based on the rapid extension of FTA can encourage countries to design new policies for business travelers, 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igration.

세계가 비즈니스 목적의 국제이주 정책에 주목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민정책은 국내정책으로서 '국경관리, 체류관리, 그리고 사회통합'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들어 유입·출 이민을 경험하는 국가들은 새로운 관점, 즉 이민에 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이주로 인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파급효과가 외국인 이주자의 출신국과 그들을 받아들이는 유입국 양쪽에서 보다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민문제에 관한 국가 간의 손익이 서로 다르므로 국제사회에서 제도화된 국제이

민협력이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다. 특히 국제이주의 목적과 동기에 따라 이민의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국가들은 특정한 이민문제가 자국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주는 경우에만 이민협력을 실행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적으로 가장 진전된이민협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는 비즈니스 목적을 갖고 이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정책일 것이다.

사실 비즈니스 목적의 국제이주는 이민정책의 국 제협력적 관점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민의 유형이다. 무엇보다도 이민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 의 이해관계가 항상 제로섬(zero-sum) 게임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별 국가들은 비즈니스 목적의 이주자가 본국과 목적국을 오가 며 초국가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동안 이주자의 본국과 유입국 양쪽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상호적인 개발 효과에 주목한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절차를 제공하고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체류기간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출입국우대정책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비즈니스 목적 이주에 관한 국제협력이 글로벌 수준보다는 특정 지역 차원에서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가 국제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온 것과 동시에 특정 지역 내에서 심화되어온 지역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히 경제적 지역협력의 일환으로도 진행되는 양국 간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내에서 서비스 무역 자유화 논의가 진전되면서 비즈니스 목적의 국제이주에 관한 각국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FTA 체제 하에서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달리 사람의 이동을 수반하게 되는 서비스 무역 자유화에 대한 FTA 이행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에 비즈니스 목적 외국인에 관한 국제이민협력적 제도도 초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역이민협력의 대표 사례, APEC 기업인카드

이런 점에서 좋은 사례가 있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APEC 기업인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는 지역 수준에서 비즈니스 목적의 이주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주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지역이민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 1989년 설립된 경제협력체로서 2020년까지 APEC 지역에서 자유무역과 투자지대를 구축하는 것을 지역주의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BTC는 1998년에 홍콩과 칠레의 참여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21개 APEC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제도로서 APEC 내에서 무역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자주 국경이동을 하는 기업인(대표, 관리자, 전문가)에게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하여줌으로써 보다 편리한 출입국 절차를 제공한다.이 카드는 비자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카드 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APEC 기업인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는
지역 수준에서 비즈니스 목적의
이주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주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지역이민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지자는 따로 비자발급을 신청할 필요 없이 APEC 회원국가의 주요 공항에 마련된 APEC 특별통로에서 신속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매회체류기간이 59일을 넘지 않으면, 복수단기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ABTC 제도가 도입된 1998년 이래 동 카드의 소지자 수는 2006년에는 1만2,000명이었으나, 6년 만에 카드 발급자 수가10배이상 증가하였다. 특정 지역 내에서 비즈니스 목적 기업인의 국제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 참여국가들이 공통으로 도입하고 실행하는 출입국관리정책으로서 국제이민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평가된다.

한편 한국은 ABTC 제도 외에도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출입국 우대정책도 갖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자동출입국심사(SES, Smart Entry Service)제도가 대표적인 예인데, 2012년 4월부터는 SES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비

즈니스 목적 비자소지자-주재(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D-9)-및 기업투자(D-8) 자격에서 거주(F-2)로 비자를 변경한 외국인을 포함시켰다. 특히 기업투자(D-8)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ABTC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인천국제공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출국통로(fast track)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출입국 절치를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한국정부가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출입국우대정책은 본격적인 국제이민협력의 결과이기보다는 '경제활성화와 인 재유치'를 추구하는 국내정책으로서 기존 이민정책 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비 즈니스 목적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우대정책을 가진 여타 선진국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인에 관한 각국의 출입국 정책은 국제이민협력의 틀 내 에서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인가? 장기적으로 예측하여 본다면 개별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확 산되는 FTA 체제 내 '서비스 무역 자유화'에 관한 논의를 통해 특정 FTA 체제 내에서 비즈니스 목적 외국인에 대한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듯 FTA 체제를 고려하여 비즈니스 목적 외국인의 출입국정 책을 새롭게 구조화하는 과정은 국내 정책적 관점 에 국한된 기존의 이민정책을 넘어 국제관계 속에 서 이민문제를 조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비즈니스 목적의 이주에 관한 출입 국 정책을 매개로 이민정책과 외교정책의 접점을 찾아가는 정책과정이기도 하다.



국제이주기구(IOM)와 대한민국 정부간 국제협정에 의해 2009년 12월에 설립된 비영리 연구·교육 기관. 지역사회와 정부, 나아가 아시아 지역 및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민, 다문화 정책에 특화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코리아 특급, 비즈니스 파트너? 신속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지!

World-class business partner?
None other than Korea's fast and convenient immigration service

해외여행 또는 짧은 기간 동안의 비즈니스 업무를 위해 공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유불문, '시간이 금이다'는 아닐까. 1분 1초가 아쉬운 그들에게 맞춤 서비스로 감동을 선사하는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야말로 코리아 특급, 비즈니스 파트너이다. 신속하고 편리한 대한민국의 출입국 서비스가 비즈니스맨들과 다기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What do travelers and those taking care of business for a short period of time have in common when using airport services? It would be that every minute counts, regardless of their reasons. For those on a tight schedule, Korea Immigration Service (KIS) is their world-class business partner, impressing travelers and businessmen alike by offering customized services.

정리 **편집실** 자료 출처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12



12초면 출입국심사 완료! 3천만 비즈니스맨들의 선택은 SES!

대한민국 자동출입국심사 SES(Smart Entry Service)는 사전에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지문, 안면)를 등록한 승객에 한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출입국심 사를 진행하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이다. 심사관의 대면심사 없이 자동출입 국심사대를 이용해 약 12초 이내에 출입국심사를 마치는 편리한 제도로, 홍콩 e-Gate, 네덜란드의 Privium, 미국의 Global Entry, 호주의 Smart Gate 등 50여 개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08년 6월, 인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개시 후 2015년 2월 현재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인천항, 청주공항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용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했다. 2015년 2월 현재 인천공항 72대, 김포공항 4대, 김해공항 10대, 제

주공항 4대, 청주공항 4대, 인천항 7대 총 10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이용 또한 점차 증가하여 2014년말 기준 3,100만 명(이용자수 누적 집계)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장기체류 외국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격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국을 오가는 내외국인이 보다 빠르고 편리한 해외여행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Immigration processing complete in just 12 seconds - there is a reason 30 million businessmen choose SES

Smart Entry Service (SES) is the state-of-the-art automatic immigration clearance system of Korea that uses preregistered passport and biometric information (fingerprints and facial photograph). Travelers bypass face-to-face immigration inspection by screening themselves at immigration checkpoints via the Smart Entry Service Auto-gate—all in less than 12 seconds. This convenient



After implementing SES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 June 2008, KIS has expanded its service to other international airports in Korea so that more travelers can take advantage of it. As of February 2015, SES can be found at Gimpo International Airport,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Jeju International Airport, Incheon Port, and Cheongju International Airport. Currently,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has 72 SES Auto-gates, Gimpo International Airport four,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10, Jeju International Airport four, Cheongju International Airport four and Incheon Port seven, totaling 101. The number of SES users has steadily increased, with a total of 31 million users by the end of 2014. By expanding eligible users to include foreigners with long-term stay permits, KIS provides both Koreans and foreigners traveling to and from Korea with fast and convenient immigration processing and helps them to pursue successful business opportunities.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면?

먼저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에서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은 전국 11개 등록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김포공항, 도심공항터

미널, 서울역출장소,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대전사무소, 청주사무소, 광주사무소, 제주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출국장 5개 등록센터에서 연중 등록이 가능하다.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방법은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등록센터에 방문한 후 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으로 등록이 완료되며 즉시 이용 가능하다. 또한 만 14세 이상, 만 17세 이하의 국민은 부모와 동반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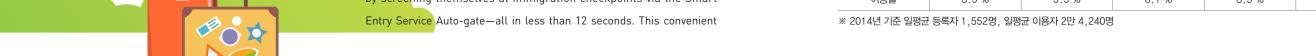
How can I use SES?

First, travelers must register their passport and biometric information in advance at enrollment centers. A total of 11 enrollment centers can be found nationwid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Gimpo International Airport, City Airport Terminal, Seoul Station,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Jeju International Airport, Daegu International Airport, and enrollment centers in Daejeon, Cheongju, Gwangju and Jeju. Fo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ravelers can register their information at enrollment centers located at its five departure areas from 7 am to 7 pm all year round. Simply bring a valid passport and Residence ID card to the enrollment center, and registration will be complete after fingerprints and facial photograph are collected. The service can be used immediately afterwards. Moreover, Korean nationals aged 14 and older and under 17 must be accompanied by their parents to submit the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 before using this service.



(단위 : 명)

연도	'08년 (6월~12월)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이용자	83만 4,915	194만 3,676	263만 7,979	405만 4,231	573만 4,701	724만 5,752	884만 7,905
 이용율	3.9 %	5.5 %	6.1 %	8.9 %	11.4 %	13.2 %	14.4 %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과 부모의 동의를 받은 14세 이상의 국민과 17세 이상의 이래 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의 이용은 2010년 8월 투자외국인, 영주권자에 한정하였지만 점차 전문 우수인력 및 투자자에게 확대했으며, 2014년부터 거주자와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Eligible users

Eligible users include Korean nationals aged 17 and older with Residence ID cards, Korean nationals aged 14 and older and under 17 with parental consent, and foreigners aged 17 and older. Only foreign investors and permanent residents were allowed to use the service in August 2010, but the eligibility was expanded to include foreigners with advanced talents. Since 2014, foreign residents and Korea Priority Card holders can also use the service.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은 어떻게?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은 여권인식, 지문인식, 안면촬영순서로 진행된다. 이용 시주의사항은 유아를 동반하여 이용할 수 없고 선글라스, 모자는 벗어야 하며, 휴대한 가방 등 자동심사대 문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거소신고제가 폐지되면서 재외국민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2016년 6월 30일까지만 자동출입국심사등록이 가능하다.

How do I use the SES Auto-gate?

The SES Auto-gate works in three steps: passport, fingerprint and facial recognition. Travelers should keep in mind that they cannot enter the Auto-gate with children. They are also advised to remove sunglasses and hats and ensure bags do not touch or bump the gate doors.

As a side note, since January 22, 2015, overseas Koreans are no longer required to report their places of domestic residence due to amendments to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This means that overseas Koreans with "Domestic Residence Report Card of Overseas Korean National" can register their information at SES enrollment centers only until June 30, 2016.

02

출입국부터 특별 대우! 출입국우대카드 & 한국방문우대카드

법무부는 사회 기여도가 높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출입 국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는 출입국 시 동반 2인까지 국제공항의 전용 출입문과 출입국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출입국우대카드 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현재 기업투자자격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법무부), 모범납세자(국세청), 독립유공자(국가보훈처) 등 10개 기관에서 선정한 총 3만 2.00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방문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한국방문우대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이 발급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절차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출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록센터에서 지문 및얼굴정보를 등록한 경우) 또는 동반 2인까지 출입국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에게는 관광지 통역 서비스, 관광시설과 면세점 등을 이용 시 각종 부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2014년 3월 17일 한국방문우대카드 제도의 시행 이후 2015년 2월 28일 기준으로 1,930명이 한국방문우대카드를 발급받았으며, 우대카드 소지자의 국내 소비금액은 약 88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관광상품과 출입국행정을 연계, 차별화된 우대카드 발급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Special treatment upon arrival - Immigration Priority Card and Korea Priority Card

The Ministry of Justice issues Immigration Priority Card to offer convenient immigration service for individuals or groups who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Korean society. Card holders and up to two accompanying persons can use exclusive gates and immigration priority lanes at international airports. The card is vali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issuance, and currently a total of 32,000 people selected by 10 institutions are using the service, including Corporate Investment (D-8) alien registration card holders (Ministry of Justice), model taxpayers (National Tax Service), and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Justice issues the Korea Priority Card to excellent foreign tourists who create high added values. Foreigners with Korea Priority Card will be issued multiple entry visas valid for five years. The Korea Priority Card can be reissued after expiration. Card holders can use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system (when they have registered their fingerprints and facial photographs in advance at the enrollment center) and immigration priority lanes along with up to two accompanying persons. Other special services include interpretation services at tourist attractions and additional services at tourist facilities and duty-free shops.

The Korea Priority Card Program was implemented on March 17, 2014, and as of February 28, 2015, there are a total of 1,930 Korea Priority Card holders. It is estimated that they spent 8.8 billion KRW in Korea. By connecting tourism packages and immigration services, KIS is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절차

신청서 접수
10개 선정기관

* 발급 제한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자

leading the way for revitalizing Korea's tourism industry and leaving foreigners with a strong impression that will make them wish to visit Korea again.

한국방문우대카드 신청하세요!

발급대상 국내 구매실적이 5년간 미화 3만 달러 이상인 자, 우대카드 발급 대행 금융기관에 한화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예치한 자, 해당국가의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 유명 연예인 등 사회 유명인사

Apply for the Korea Priority Card!

Eligibility Those who have purchased US\$30,000 worth of goods and products in Korea for the past 5 years; those who have deposited at least 50 million KRW in the contracted bank that issues Korea Priority Cards;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 celebrity or famous person in an eligible country

출입국우대카드 발급하세요!

발급대상 APEC 경제인여행카드 소지자, 기업투자자격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모범납세자, 종합인증우수업체, 기업인카드 소지자, 외국인투자 해외 모기업 임직원, 외국금융투자가, 독립유공자, 범죄피해자지원 우수법인,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

Get your Immigration Priority Card!

Eligibility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Business Travel Card holders, Corporate Investment (D-8) alien registration card holders, model taxpayers,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CIP Card holders, executives and employees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financial investors,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National Independence, employees of excellent corporations supporting crime victims, employees of excellent companies hiring ex-convicts, employees of excellent job-creating companies, employees of certified family-friendly companies, employees of excellent companies in shared growth.







링 위에 설 때면 가슴이 뛴다

인터넷에서 석봉준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프로필에 '복싱선수'라고 소개가 된다. 10전 7승 2무 1패의 전적을 가진 '한국 페더급 챔피언'이라는 이름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송무지원팀 석봉준 계장은 인터뷰를 진행할 당시 4월 10일 KBF 한국 페더급 타이틀매치를 앞두고 있었다.

"제 전적 중에 1패가 하나 있는데요, 신인왕전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노사명 선수에게 아쉽게 고배를 마셨죠. 이번 시합은 '리벤지 매치'가 될 겁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유난히 좋아했던 그는 고등학교 때 무에타이 체육관에 등록하면서 격투기와 인연을 시작했다. 운동을 시작한지 3달만에 무에타이 경기에 나갔고, 군복무로 인해 운동을 그만둘 때까지 김미파이브, 코마그랑프리등 12번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던 건 남다른 운동신경과 집중력, 그리고 열정 덕분이었다. 2010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발령받아 홀로 객지생활을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도 집 주변 복싱체육관이었다.

"예전처럼 링 위에 서는 게 그리웠어요. 그 순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 공이 되거든요. 그 짜릿함과 흥분은 오직 링에서만 느낄 수 있죠. 다시 운동을 시작하니 그 매력이 더 컸고요. 2012년 1월에 프로테스트를 거쳐 프로권투선 수로 데뷔하고, 2013년 9월 거창에서 열린 한국 페더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해 챔피언이 되어 그 해 11월 타이틀 방어전에 승리했습니다."

복싱과 공무원의 공통점은 자기관리

복성은 자기관리가 철저한 운동이다.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는 출근 전 수영을 1시간, 퇴근 후에는 곧장 체육관으로 달려가 3시간 정도 훈련에 매진한다. 그럼에도 업무 수행에 있어서 철저한 자기 관리로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석봉준 계장은 2008년 울산출입국에 처음 발령받아 업무를 시작한 이래 송무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국적회복심사 업무와 출입국 관련 소송전반을 맡은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면을 쓰고 법원에도 출석하고,

지방사무소의 법률 자문 요청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적업무를 수행하면서 내외적으로 국적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았죠. 운동 때문에 업무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 누 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법률 지식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했을 때 배운 것이 전부였기에 송무지원 업무는 큰 도전이었다.

"진입벽이 높은 업무죠. 저보다 법을 더 잘 아는 변호사를 상대해야 하니 자신 감도 떨어지고…. 마치 링 위에 선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법률용어나 절차를 몰라서 헤매기 일수였지만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리걸 마인드(legan mind)'가 길러졌습니다. 이제는 제 안의 가능성을 또 하나 찾았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낍니다."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두 차례의 방어전을 마쳤으며 지난해 11월에는 'Fighting Korea Season 1'에서 승리를 거두며 동양 챔피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동양 챔피언으로 가는 채비를 끝마친 셈이다.

한편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서의 원대한 포부도 놓치지 않는다. 법률 업무를 맡아오면서 커진 갈증이 새로운 도전을 꿈꾸게 만들었다. 법무관 출신들로 이뤄진 송무지원팀원들의 유연한 업무 처리를 곁에서 지켜보고, 또 그들이 석계 장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수년 내 방송통신대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서 국적과 소송업무의 전문가가 되고 싶고, 대학 전공을 살려 본부 내의 중국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복싱선수로서는 일본 선수가 보유하고있는 IBF 페더급 동양 챔피언 벨트를 한국으로 가져오려 합니다. 세계 챔피언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는 공무원의 표상이 되면 어떨까요?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제가 기여할 수 있겠죠?"



행복하고 안전한 동행을 지지하는 바른 원칙의 수호자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면적 4.914km! 이동거리 101km에 이르는 관합구역, 그리고 등록외국인 수가 18만 3.018명으로 관합 체류외국인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 무소는? 답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이다. 단순히 광범위한 관할구역을, 그리고 최다 민원인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최고라 칭할 순 없 다. 행정의 수요자인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각별한 배려와 서비스, 그리고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터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바른 워칙의 수호는 수워출입국관리사무소를 소개함 때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키워드이다.

글 **황지혜** 사진 **서찬우**





^{AM}09:30 **(**



관할 체류외국인 수 전국 최고 사무소의 서비스

동수원세무서,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원우편집중국 등 주요 공공기관이 모 여있는 수월 영통에는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된 수월출입국과리사무소 청 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거리에 많은 외국인이 오가는데요. 2004 년 수원사무소가 신설될 당시 5만 6.218명에 불과했던 등록외국인 수가 10 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해 2015년 2월 기준으로 18만 3.018명이라고 합니 다. 창구가 아침부터 분주한 이유가 이제야 이해됩니다. 관리과, 사범과, 조 사과로 나누어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 정원은 71명인데 평택출장소 에 8명, 오산출장소에 6명이 상주하고 있고, 수원에는 57명이 근무하고 있습 니다. 다복한 만큼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직원도 많아서 수원사무소의 하루 는 늘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관내 40여 개의 대학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기업들의 근로계약이 연초 에 몰리기 때문에 2~3월이 되면 민원실이 만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 작하기 전인 8시 반에도 번호표가 400번 이상 나가죠. 대기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불편할 민원인을 생각해 직원들이 밥 먹는 시간을 빼고 종일 일 처리를 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관리과 전홍근 계장의 설명을 듣고 보니 민원창구의 직원들이 움직임이 왜 그 렇게 신속, 정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기하는 민원인들이 눈 에 많이 띄었는데요. 이렇듯 민원인의 사무소 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직원 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 '찾아가는 출입국 서비스'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하 는 3월, 9월이 되면 사무소 직원들이 나서 아주대학교, 경희대학교, 강남대학 교 등 관내 인증대학을 찾아가 유학생 및 유학생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체류업무를 제공하는 대학 이동출입국을 운영합니다. 또한 이천시



청에 이동출입국을 운영하여 경기도 동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출입국관리업무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원사무소는 청사 내에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 치 및 우리은행 수위출입국출장소 유치를 통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ATM을 이용한 등록증발급수수료 수납을 통하여 등록증 발급에 서 수령까지 2일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생각하고 다가가는 수원사무소의 혁신 노력, 이것이 바로 관할 체류외국인 수 전국 최고 사무소가 선보이는 명 품 서비스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11:00 ④

고향처럼 편안하고 푸근한 이민통합지원센터

청사 3층에는 지역 내 소문이 자자한 이민통합지원센터 사랑방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나라를 대표하는 인형과 기념품이 배치가 된 사랑방에 들어서니 결혼이민자가 이국 땅에서 느끼는 향수를 다소나마 달래줄 수 있겠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1층 종합민원실에서 맹활약 중인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먼저



들러 민원자원봉사자 명함을 받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20 여 개국 회원 수 212명을 자랑하는 수원의 대표적인 외국인 커뮤니티, 이민자 네트워크가 매월 초 목요일에 전체회의를 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외국인 체류자의 다채로운 사연과 인연이 쌓여가는 곳입니다.

"하루는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는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수 원사무소에 방문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라 본국에 있는 남동생 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답답한 마음에 사랑방 에 오셔서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분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심한 끝에. 지난 연말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 천했죠. 당장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순 없어도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친구가 되어 줄 순 있습니다."

관리과 이민통합지원센터 나경임 반장이 든든히 지키는 사랑방에는 앞으로도 수많은 이야기가 쌓이겠지요? 수원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이민자와 함께 하는 마음 나눔 바자회 등 지역사회, 이웃과 마음 을 나누는 법을 실천하는 행사를 계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한외국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고.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데 진정한 사회통합의 길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네트워크 모임 활성화를 위해 수원사무소는 지난해 10월 제2기 수원출입국이민통합지원협의회를 출범시켰으며, 12월부 터 재한외국인지원협회(사단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한외 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와 출입국 · 외국 인정책본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소개하는 교두보가 되어 줄 겁니다.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우리가 나선다

사랑방을 지나 출입국사범 단속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조사과 직원들을 만 나봤습니다. 단속현장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고, 단속 방해의 어려운 업 무여건 속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박춘봉 사건 등 강력사건이 발생해 많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조사과

신양범 실장의 활동 계획을 들으니 안심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금년 도에는 불법체류자 감축과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다른 출입국관리사무소. 수 원시 등 지방자치단체, 경기지방 경찰청과의 협업이 한층 강화되었답니다. "광역단속반이 지난 1월 6일 새로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수원출입 국 우범지역 순찰활동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24회 실시했습니다. 또 2월 10일과 3월 27일에는 수원시, 경기지방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찾아가 자진출국 유도와 불법 고용에 대한 방지 계도 활동을 펼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상한 외국인을 적발하면 길거리에서 언성을 높여가며 업무를 처리해야만 했 던 모습도 앞으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수원시에서 5월 중 순찰분소를 지원 함에 따라 이제는 조사과 직원들이 순찰분소에 입주해 안정적으로 순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사과는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매 월 1회 정도 관계 기관과 순찰활동을 연계하며, 4월에는 수원시 뿐만 아니라 평택, 화성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7:05 **(**)

때로는 엄정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조사과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바빠진 부서가 있는데요. 바로 출 입국사범에 대한 위반조사와 심사 결정을 맡고 있는 사범과입니다. 관할 검 찰청으로부터 문서로 통보 받았던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자료를 대검과의 전 산 연계를 통해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일괄 전송 받으면서 2015년 3월 기준 8.800여 건을 처리할 정도로 업무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 "범법 외국인의 보 호와 고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른 오전 시간과 오후 5시가 지날 때면

입 · 퇴소하는 보호외국인들에 대한 행정업무처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다"고 사범과 김영술 계장이 보호실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또한 보호실 직원의 부족과 일일 보호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사무소 직원들이 계호업무에 임해야 하는 힘든 여건에 놓인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특히 형사범의 경우 80% 이상 증가하여 사범과의 새로운 업무부담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무조건적인 강제출국조치가 어렵고 인도적 사유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김영술 계장은 이러한 행정업무 환경의 변화에 "유기적인 대처를 위해서 조사과를 비롯한 수원사무 소의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강조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 하는 각별한 배려. 그리고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터전을 만 들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바른 원칙의 수호, 수원사무소 를 찾는 국 · 내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인상적이에요



와유니 피트리아 나수송(WAHYUNI FITRIA NASUTION, 인도네시아) 오늘은 비자변경을 위해 수원사무소에 왔어요. 그동안에는 학생비자였었는데 최근에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에 취업했거든요. 취업을 하고 나니 할 일이 많은데 가장 먼저 수원사무소에 와서 비자변경을 신청했어요. 아주대학교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자주 방문한 수원사무소는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인상적이고, 또 외국인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직원들이 있어 매번 편안한 마음으로 오게 돼요.

한해 대한민국 출입국자 수는 얼마?

출입국 행정을 맡고 있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는 숫자로 기록된다. 그렇기에 통계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의 소식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이다. 통계를 활용해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의 이슈를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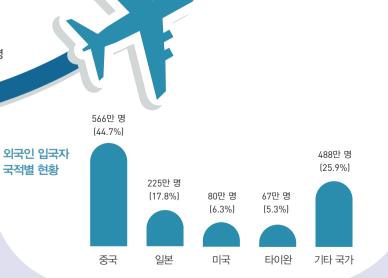
정리 **편집실** 자료 출처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ಖನ್ನು ಬಿನಸ} 14,264,508_ಡ

() 1출입국자 수6천만 명 시대

지난해 출입국자 수는 6,165만 명으로 최다를 기록,이 중 국민출국자는 1,637만 2,830명으로 2013년 1,515만 3,341명 대비 8.04% 증가했으며,외국인은 2,892만 9,790명을 차지하였습니다. 2005년 출입국자 3천만 명 시대에 접어든지 10년만에 2배로 늘어난 6천만 명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한편외국인 입국자는 202개 국가에서 1,426만 4,508명으로 '13년 188개 국가 1,220만 417명에 비해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외국인이 더욱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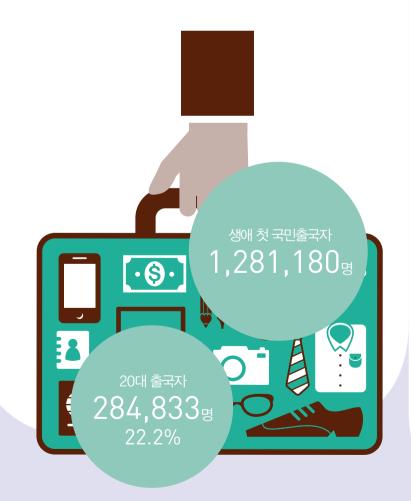
ਧਾਣਿਕਾ 16,372,830ਫ਼



)2

첫 해외나들이 나선 국민, 128만 명!

지난해 생애 처음 출국한 국민은 전체 국민출국자의 8.5%, 128만 1,180명였습니다. 그 중 20대가 28만 4,833명(22.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5회 이상 출국한 국민도 109만 2,878명(6.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공항만별 출입국자는 인천공항(3,859만 명), 김해공항(516만명), 김포공항(406만명), 제주공항(310만명), 부산항(132만명), 인천항(117만명) 순입니다.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부산항, 인천항 등은 출입국자가 증가한 데 반해, 부산항은 14만명(9.5%)이 감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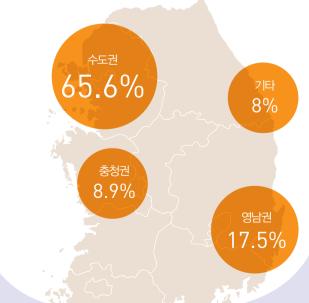
03 우리나라 인구의 3.5%는 누구?

국내 체류외국인은 '14년 12월말 기준 179만 7,618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5%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K.I.S. **CALENDAR**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화제의 NEWS

5~6월 주요 일정

• 5월 10일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수립일

• 5월 11~12일_ 전국 출입국관리 기관장 및

• 5월 20일_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 6월 20일_ 세계 난민의 날 기념행사

해외주재관 회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시행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전국 각지의 조사과장이 함께한 지난 2월 17일에 열린 회의에서 '15년도 불법 체류자 감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종 외국인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불법체류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단속 방안에 이어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유도 방안에 대해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범칙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물리적 충동 없이 원활한 귀국을 유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출입국자 6천만 명 시대 도약

법무부는 지난해 출입국자가 약 6,165만 명으로 대한 민국 출입국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4년 총 출입국자는 '13년보다 대략 12% 증가한 6,165만 2,158명으로 이 중 한국인과 외국인 비율이 각 절반 정도 차지한다. 이는 '05년 출입국자 3천만 명에 이어서 10년 만에 2배로 늘어난 셈이다. 작년 외국인입국자는 202개여 국가에서 1,426만 4,508명으로 '13년도에 비해 입국자 수가 약 15% 증가했으며 방문국가 또한 다양해졌다. 국내 체류외국인은 '14년 12월 기준으로 179만 7,618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3.5%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절반의 비율로 1위에 해당하며 이어 베트남, 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으로 체류외국인이 많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방문



지난 3월 18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유엔난민 기구 한국대표부 대표가 방문했다. 이날 본부에서 개최 된 회의에서는 김영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참석해 세계 난민의 날 기념행사와 재정착난민 수용 관련업무협약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유엔난민기구의 상호 협력 관계 지속적 유지에대해서 거듭 확인하는 장이 되었다. 특히 회의의 주요의제인 재정착난민 수용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수요에 부응하고 책임 있는 역할 분당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12년도부터 재정착난민제도 도입을 검토해왔다. 이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향후 시범사업을 실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정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중에 있다.

창업취업비자 확대

법무부가 우수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취업을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의 취업·구직 및 창업을 위한 국내 체류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 시행 조치는 일명 '휴먼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이며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의 창업과취업을 위한 비자발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행된다. 이번 체류요건 완화를 통하여 국내 기업이 우수 외국인을 고용하여 혁신경제 실현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감각을 갖춘 우수한 유학생들이 국내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의 활발한 유치를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한민국 출입국심사 60년사 발간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 무소가 지난해 12월 대 한민국의 번영과 함께 해온 출입국심사 60년 을 맞아 「대한민국 출입 국심사 60년사』를 발간 했다. 이 책은 대한민국 대표 관문인 김포국제 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심사 변천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1954년 외무부 김포출장소로 출발한 인천공항출입국관 리사무소는 '15년 연 6천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출입국 자의 약 70%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사무소를 자처하며, 세계 최고의 출입국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큰 일조를 해왔다. 국가 경제 발전과 선진국으로의 도약으로 출입국을 이용하는 인원 증가, 이민 환경 변화 등 진화하는 출입국 상황에 따라 출입국시스템 또한 변화에 발맞춰 진화해 왔다. 또한 국제교류심화와 더욱 복잡해진 국제환경에 따라 출입국은 전문화되고 첨단화된 출입국심사시스템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대한민국 출입국심사 60년사」는 이러한 출입국의 발자취를 그려내며 한층 더 다변화되는 미래를 대비하는 소중한 기반으로 쓰이고자한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개소

지난 3월 9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가 당진시 송압읍 고대리에 위치한 당진항 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당진항을 이용하는 관련업체의 업무가 한층 용이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당진출장소는 난민신청 업무를 제외하고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외국인 등록 등일반체류 업무와 사증, 조사, 재외동포 거소 신고, 선박심사,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한다. 당진시는 이번당진출장소 개소로 그동안 전무했전 당진항의 외국 선원 상륙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소: 당진항운영지원센터 2층

(충남 당진시 고대공단2길 79-33)

처리업무: 일반 체류업무, 사증, 조사,

재외동포 거소신고, 선박심사,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국적 신청 제외)

업무시간: 평일 09:00~18:00

교통편: 1. 당진버스터미널 하차 시내버스 31번 이용

2. 일반버스 26, 31번 이용 (내도리 입구 하차 도보 10분) 제8회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법무부가 주최하는 '제8회 세계인의 날' 행사가 오는 5월 20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차이를 넘어 더 가까이(Beyond Difference, Closer to You)'로 삼았으며, 법무부장관 및 내외귀빈, 이민자 단체 등 700여 명을 초대해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매년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로 국민과 재한외국인 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해 법무부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재한외국인 생활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사전에 개최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 김영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취임



박근혜 대통령이 2월 16일 청와대에서 김주현 법무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지검에서 검찰의 첫발을 디뎠다.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김주현 차관은 정책 판단과 기획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다. 또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출입국·범죄예방 및 교정, 인권 업무 등 을 경험한 바 있다.

또한 2월 11일 김영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이 제6대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김영 준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세계의 인류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인식과 자세를 새로이 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과 서비스를 확립하겠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세계인을 고객으로 모시는 공무원으로서 모든 인류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바탕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더욱 튼튼하게 다져나가는 한편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에게도 그들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준 본부장은 사법시험(28회)에 합격하고, 대검 검찰연구관, 주 미국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31대 창원지검장 등을 거쳤다.

